

# 국외자매도시방문 귀국보고서

[2016. 8. 27. ~ 8. 31.]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 차 례

|                   |       |    |
|-------------------|-------|----|
| I. 공무국외여행개요       | ----- | 1  |
| II. 방문일정          | ----- | 3  |
| III. 연길시와의 교류추진   | ----- | 5  |
| IV. 주요추진사항        | ----- | 9  |
| V.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고찰 | ----- | 12 |
| VI. 방문결과          | ----- | 22 |

## I. 공무국외여행개요

### ■ 여행목적

우리구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개최하는 「제11회 중국 연길·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의회 대표단을 파견하여 경제교류 활성화 및 문화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양 도시의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집행부의 국제교류 현황을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차후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 여행기간 : 2016. 8. 27. ~ 8. 31.(4박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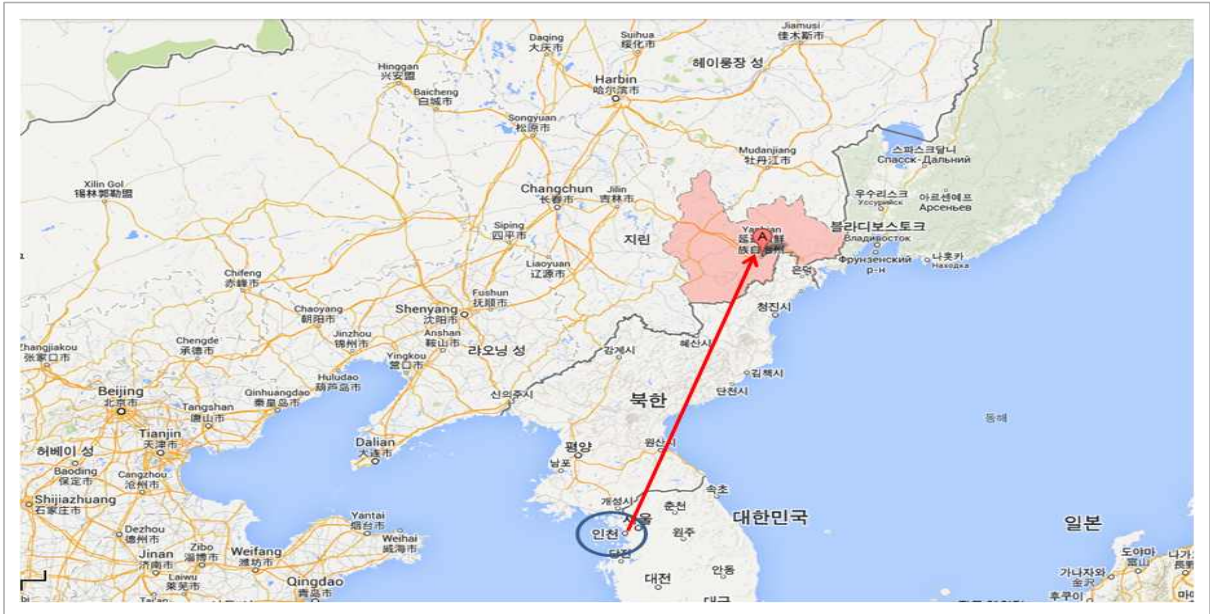
### ■ 여 행 국 :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 ■ 여행자 인적사항

| 연번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1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정애 | 관악구의회의<br>의 원 |
| 2  | 의 원         | 임춘수 |               |
| 3  | 의 원         | 주순자 |               |
| 4  | 전문위원        | 이부열 | 수행직원          |
| 5  | 행정7급        | 송민석 |               |

##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016. 8. 27.(토) ~ 8. 31.(수), 4박 5일
- 방 문 지 :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 방문인원 : 관악구의회 5명 \* 관악구청 3명 별도
  - 의원 3명(관악구의회 의장 대리), 수행직원 2명
- 주요일정
  - 연길시 시장 접견 및 환영 만찬 참석
  - 국제투자무역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전시장 관람
  -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주요 유적지 등 방문
- 방문목적
  - 「제11회 중국 연길·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여
  - 박람회 참여를 통한 상호 도시 간 신뢰 증진 및 우의 도모
  - 연길시 경제 현황 및 성공사례, 기업 활동 및 투자 현황 파악
  - 국제교류 현황을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발전적인 방향 모색

## II. 방 문 일 정

■ 2016. 8. 27.(토) ~ 8. 31.(수), 4박 5일

| 일 시                |       | 장 소 | 주요일정                                 | 비 고     |
|--------------------|-------|-----|--------------------------------------|---------|
| 1일차<br>8.27<br>(토) | 07:10 | 인천  | 인천공항으로 이동(의회앞 출발)                    | -       |
|                    | 08:20 | 연길  | 출국수속(M카운터19·20번)                     | -       |
|                    | 10:45 |     | 인천공항 출발                              | OZ3513편 |
|                    | 12:10 |     | 연길공항 도착                              | 연길공항    |
|                    | 13:00 |     | 호텔체크인, 중식                            | 국제호텔    |
|                    | 15:30 |     | 시장접견(채규룡 시장)                         | 백산호텔    |
|                    | 18:00 |     | 만찬                                   | 해란강 식당  |
| 2일차<br>8.28<br>(일) | 06:30 | 연길  | 조식                                   | 국제호텔    |
|                    | 09:00 |     | 제11회 중국 연길·두만강지역<br>국제투자무역박람회 개막식 참석 | 국제컨벤션센터 |
|                    | 10:00 |     | 박람회 전시장 참관 및 상담                      | "       |
|                    | 12:30 |     | 중식                                   | 국제호텔    |
|                    | 13:30 |     | 연길 시내 시찰                             | -       |
|                    | 17:30 |     | 시정부 환영만찬                             | 백산호텔    |

| 일 시                |       | 장 소 | 주요일정                       | 비 고     |
|--------------------|-------|-----|----------------------------|---------|
| 3일차<br>8.29<br>(월) | 06:30 | 연길  | 조식                         | 국제호텔    |
|                    | 09:00 |     | 도문, 용정 일대<br>(두만강, 윤동주 생가) | -       |
|                    | 13:00 |     | 중식                         | 국제호텔    |
|                    | 14:00 |     | 연길시내 시찰                    | -       |
|                    | 17:00 |     | 시정부 환영만찬                   | 백산호텔    |
| 4일차<br>8.30<br>(화) | 04:30 | 연길  | 백두산 시찰                     | -       |
|                    | 19:00 |     | 석식                         | 국제호텔    |
| 5일차<br>8.31<br>(수) | 08:30 | 연길  | 조식                         | 〃       |
|                    | 11:40 |     | 체크아웃                       | 〃       |
|                    | 12:20 |     | 공항 이동 및 출국 수속              | 연길국제공항  |
|                    | 14:55 |     | 연길공항 출발                    | OZ3523편 |
|                    | 18:25 | 인천  | 인천공항 도착                    | -       |

### Ⅲ. 연길시와의 교류 추진

#### ■ 연길시 일반현황

- 위 치 : 길림성 동부, 장백산맥 북쪽 기슭
- 면 적 : 1,350km<sup>2</sup>(관악구 46배) ※ 관악구 29.57km<sup>2</sup>
- 인 구 : 65만명
  - 다민족이 모여있는 도시로, 조선족이 58%, 한족이 39%, 기타 만주족, 회족, 몽고족 등 소수민족이 있음.
- 행정구역 : 6가도(街道) 3진(鎮) 1개 성급 경제개발구
  - 가도 : 허난 가도(河南街道), 베이산 가도(北山街道), 젠공 가도(建工街道), 신싱 가도(新口街道), 공위안 가도(公口街道), 차오양 가도(朝口街道)
  - 진 : 이란 진(依口), 샤오잉 진(小口), 찰다오완 진(三道口)
  - 경제개발구 : 연길 경제개발구
- 기 후 : 온대 반습윤 기후, 연평균 5.5℃, 강수량 479mm
- 주요자원
  - 광산자원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대리석, 맥반석, 규회석 등 각종 광물
  - 관광자원 : 백두산, 연변조선족민속원, 천년송경구, 도운루
  - 특 산 품 : 인삼, 녹용, 담비모피
- 역사문화
  - 1909년 : ‘연길청’ 이 ‘연길부’ 로 조정
  - 1912년 : ‘연길현’ 으로 변경
  - 1945년 : ‘연길시’ 로 승격
  - 1952년 : ‘연변조선족자치구(1955년 자치주로 격하)’ 의 수도가 됨

- 1953년 : ‘연길시’ 와 ‘연길현’ 이 분리
- 1983년 : ‘연길현’ 은 ‘용정현’ 으로 개칭
- 1985년 : 연길시를 국가 A급 개방도시로 비준

#### ● 경제현황 (2015년도 기준)

- GDP : 305.79억 위안(한화 5조 5,300여원)

#### ● 공공시설

- 교통시설
  - 항공 : 옌지 차오양천 국제공항(베이징 · 톈진 · 상하이 · 서울 등 운항)
  - 철도 : 베이징, 선양, 칭다오, 하얼빈 등지로 통행
  - 도로 : 147km, 장춘-훈춘 고속도로(연길 경과)
- 교육시설 : 대학교 1개, 고등학교 8개, 중학교 19개,  
중등전문학교 6개, 초등학교 26개
- 의료시설 : 총 441개, 기술인력 4,637명
- 과학기술 : 성급 과학기술 진보상 7개, 전매특허 수여 186개,  
과학기술 인력 2.5만명

#### ● 연길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

- 1993년에 길림성 인민정부로부터 비준을 받았고 2010년 11월 29일 국무원으로부터 국가급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로 승급 비준되었으며, 현재 계획면적은 5.33km<sup>2</sup>로 이미 200개가 넘는 기업이 모여 있고, 계속적으로 중소기업단지, 과학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음

## ■ 연길시와의 교류현황

- 자매결연 체결 : 2011. 8. 28 (※ 우호협력 1997. 3. 29)

● 교류현황 (2010 ~ 現在)

|                  |                                                        |
|------------------|--------------------------------------------------------|
| 2010.7.21~7.30   | 관악구 청소년 연길시 홈스테이 실시 (중학생 5, 인솔자 2)                     |
| 2010.8.5~8.12    | 연길시 청소년 관악구 홈스테이 실시 (중학생 12, 인솔자 4)                    |
| 2010.8.27~8.31   | 관악구 대표단 연길시 무역박람회 참여 (구청장외 20)                         |
| 2010.10.22       | 연길시 대표단 교류협력 논의차 관악구 방문 (부시장 등 4)                      |
| 2011.8.27~8.31   | 관악구 대표단 연길시 자매결연체결 및 무역박람회 참여 (공무원7 의원4,상공인17)         |
| 2011.10.27       | 연길시 대표단 교류협력 논의차 관악구 방문 (부시장 등 4)                      |
| 2012.1.10~1.19   | 관악구 청소년 연길시 홈스테이 실시 (중학생5, 인솔자 1)                      |
| 2012.5.11~5.12   | 연길시 대표단 관악산 철쭉제 방문 (부시장 외 5)                           |
| 2012.9.1~9.5     | 관악구 대표단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60주년 기념식 및 무역박람회 참여 (공무원7,의원4,상공인8) |
| 2012.10.26~10.27 | 연길시 체육국장 등 문화예술교류 논의차 관악구 방문 (9명)                      |
| 2013.8.27~8.31   | 관악구 대표단 연길시 무역박람회 참여 (공무원8, 의원10, 상공인5)                |
| 2014.6.13        | 연길시 대표단 교류협력 논의차 관악구 방문 (부시장 등 4)                      |
| 2014.8.27~31     | 관악구 대표단 연길시 방문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여                            |
| 2016.1.20~1.26   | 관악구 청소년 연길시 방문 홈스테이 실시 (중학생 6명, 인솔자 1명)                |
| 2016.2.15~2.19   | 연길시 청소년 관악구 초청 홈스테이 실시 (연길시제3중학교 학생 6명, 인솔자 2명)        |

## 연길시 주요인사

| 연길시 당서기                                                                                                               | 연길시장                                                                                                                 | 연길시 부시장                                                                                                              |
|-----------------------------------------------------------------------------------------------------------------------|----------------------------------------------------------------------------------------------------------------------|----------------------------------------------------------------------------------------------------------------------|
|  <b>강 호 권</b><br>(姜虎□)<br>1972. 12월생 |  <b>채 규 룡</b><br>(蔡奎□)<br>1965. 8월생 |  <b>정 권</b><br>(□ □)<br>1970. 6월생 |
| - 훈춘시장, 연길시장<br>- '15. 01~ : 연길시 당서기                                                                                  | - 연길시조직부부장,<br>- 용정시 부시장<br>- '16. 08~ : 연길시 대리시장                                                                    | - 연길시 건설국 부국장<br>- '11. 08~ : 연길시 부시장<br>※ '16. 4월 내방시 대표                                                            |

### ※ 연길 부시장(8명)

진효명(秦□明), 정권(□□), 곡건군(曲建□), 개영홍(盖映□), 박림호(朴林虎), 최창현(崔昌□), 송술산(宋述山), 왕영민(王英民)

### ● 연길시 국제교류 현황

- 대한민국 : 관악구(1997.3.29), 인천 서구(1998.10.12), 창원시(2002.4.30), 대전 대덕구(2004.4.22), 고양시(2007.10.31), 남원시(2005.9.2)
- 그외 지역 : 러시아 유즈노시할린스크시·하싼구, 일본 아키타현·니카타시

### ● 연길시 소개

- 연길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州都)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시내 모든 상호 및 공문서는 중국어와 한글을 같이 사용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음.



[연길시 풍경]

- 또한 UN의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UNPP)의 중추 거점 도시로 삼림, 광산, 특산물 자원이 풍부하고 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현재 2, 3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독특한 지리적 이점으로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요충지이기도 함.
- 동, 남, 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개활지이며 중심지는 평탄한 말밭급형 분지임. 연길시의 평균 해발고도는 비교적 낮아 150m밖에 되지 않음. 지세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구릉지가 위주임. 연길의 하천은 모두 두만강 지류인데 주요한 하천으로는 부르하통하, 연집하와 해란강이 있음.
- 또한 연길시는 비록 유서 깊은 역사문화 도시는 아니지만 수려한 자연경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연길을 기점으로 북쪽에는 산수가 수려한 경박호가 있는데 조수루 폭포, 대고산 등 8대 경관이 있으며, 민족의 영산 장백산(백두산), 광활한 원시 삼림과 두만강, 중국과 러시아 변경 풍경, 조선족 민속촌, 겨울철의 장백산 스키장, 해란강 래프트 등이 있음.

## IV. 주요추진사항

### 연길시 시장 접견

- 일 시 : 2016. 8. 27.(수) 15:30
- 장 소 : 연길시 백산호텔
- 참 석 자 : 관악구의회 및 관악구청 대표단, 연길시장 및 관계자
- 내 용 : 상견례 및 참석자 소개, 환담



연길시 시장과의 면담



연길시 시정부와의 환영만찬

## ■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석

- 목 적 :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연변의 역할을 홍보하고 연변지역 최대의 국제투자, 무역교류 행사로서 많은 무역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함
- 기 간 : 2016. 8. 27.(토) ~ 8. 31.(수)
- 장 소 : 연길 국제컨벤션센터
- 내 용 : 개막식, 전시상담회(상품전시 및 상담) 등
- 주 최 : 연변조선족자치 주정부, 길림성 상무청, 길림성 무역추진위원회
- 주 관 : 연길시정부, 중국 연길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조직위원회
- 후 원 : 연변주 상무국, 연변주 무역추진위원회, 연변주 각 현·시정부
- 특별후원 :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 세계한인협회, 벤처기업협회(KOVA),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투자무역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전시장 관람

## ■ 주요 역사 · 문화유적지 시찰

- 일 시 : 2016. 8. 29(월) ~ 8. 30.(화)
- 장 소 : 두만강(북한 접경지역), 윤동주 생가, 백두산
- 내 용
  - 북한 접경지역인 두만강에 방문하여 북한을 먼 말치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제 강점기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인 윤동주 생가에 방문하여 일제 강압에 고통 받은 조국의 현실과 인간의 삶을 조명
  -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여 민족정신 함양



북한접경지역(두만강)



윤동주 생가 방문



백두산 시찰

## V.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고찰

### ■ 중국현황

- 국 명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 국 기 : 오성홍기
  - 큰 별은 중국공산당, 작은 별은 4개의 인민계급(노동자, 농민, 도시 소자산, 민족 자산 계급) 상징
- 일반현황
  - 수 도 : 북경(北京, 베이징)
  - 면 적 : 960만 $\text{km}^2$  (한반도의 44배, 세계 4위, 남한면적의 약 100배)

- 인 구 : 약 13억 5,569만명 (2014. 7. 기준)
- G D P : 11조 3,830억\$ (세계2위, 2015 IMF 기준)
- 언 어 : 표준어 - 普通話 (푸통화)
- 통 화 : 위안화(Y) \* 1위안=약 168원
- 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 공휴일 : 元旦(위엔단/신정설: 1.1), 春節(춘자에/음력 1.1), 국제부녀절(3.8), 노동절(5.1), 청년의 날(5.4), 국제 어린이날(6.1), 중국 공산당 창당일(7.1), 중국 인민 해방군 건군일(8.1), 국경절(10.1)
- 정치체제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1993년 헌법제1조)
  - 정부형태 : 공산당 일당 독재 (형식상 8개 정당 존재)
  - 의 회 : 단원제 (전국인민대표대회)
- 행정구역 : 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자치구
  - 4개 직할시 : 북경, 천진, 상해, 중경
  - 5개 자치구 : 내몽고 자치구, 신강위구르 자치구, 서장 자치구, 광서장족 자치구, 영하 회족 자치구
  - 2개 특별자치구 : 홍콩, 마카오
  - 22개 성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中国 延边朝鲜族自治州]

### ● 일반현황

- 위 치 : 중국 지린성(吉林省,길림성) 동부



- 면 적 : 43,474km<sup>2</sup>
- 인 구 : 227만6천명
- 행정관청소재지 : 연길시 하남가 759
- 홈페이지 : <http://www.yanbian.gov.cn>
- 주 도 : 연지시(延吉市, 연길시)

● 행정구역 : 6시 2현

● 지역특성

- 80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중국 최대의 조선인 거주 지역임. 자치주 전체 인구 가운데 조선족 인구 비율은 36.7%이며 조선족이 전체인구의 2%에 불과한 둔화시를 제외한 연변 지역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46.5%임.

- 주도(州都)는 옌지시[延吉市, 연길시]임. 조선 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곳으로 이전에는 북간도라고 불림. 1952년 9월 3일에 자치구가 설립되고, 1955년 12월에 자치주로 변경되었음. 옌지[延吉] · 투먼[圖們] · 둔화[敦化] · 허룽[和龍] · 룡징[龍井] · 훈춘[琿春]의 6개 시와 왕칭[汪清] · 안투[安圖] 2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음.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조선족 · 한족(漢族) · 만주족(滿州族) · 후이족[回族]의 순임.
- 지린성 동부에 있으며,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접함. 창바이산맥[長白山脈]과 라오예링산맥[老爺嶺山脈] 경내로 뻗어 있고, 그 사이에 옌지분지가 펼쳐짐. 이 때문에 해발고도 500~1,000m 지점이 많음. 이 산지에서 흘러 나오는 하천은 동베이수계[東北水系]의 근원이 됨. 주요 하천으로는 투먼강 · 쑹화강 · 무단강 · 쑤이펀강 등이 있음. 투먼강 유역에 있는 중국의 국제개발지인 훈춘경제개발지를 '동북아 금삼각주(東北亞金三角州)'라고 부름.

### ● 민족 구성 비율

- 조선족 : 36.7%(약 80만명으로, 이 중 70%가 연길, 용정, 화룡, 도문에 거주)
- 그 외 : 한족 60.4%, 만주족 2.4%, 후이족 0.3%, 기타(몽골족 등) 0.1%

### ● 시 · 현별 조선족 인구비율

| 옌지시<br>(延吉, 연길) | 룡징시<br>(龍井, 용정) | 허룽시<br>(和龍, 화룡) | 투먼시<br>(圖們, 도문) | 훈춘시<br>(琿春, 훈춘) | 둔화시<br>(敦化, 둔화) | 왕칭현<br>(汪清, 왕청) | 안투현<br>(安圖, 안도) |
|-----------------|-----------------|-----------------|-----------------|-----------------|-----------------|-----------------|-----------------|
| 58%             | 67%             | 60%             | 58%             | 45%             | 2%              | 30%             | 25%             |

- 기후 : 대륙성 기후이나 변화가 잦고, 강수량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하천의 수량이 풍부함

| 기 온  |       |       |       | 연평균강수량    |
|------|-------|-------|-------|-----------|
| 연평균  | 8월 평균 | 최저기온  | 최고기온  |           |
| 2~6℃ | 21.5℃ | 16.9℃ | 26.9℃ | 500~700mm |

## ● 자원

- 농업은 주로 곡저평지(谷底平地)에서 이루어지며, 쌀·콩·조 등의 곡물을 생산. 특히 벼농사는 한국인이 이주한 뒤에 발달하였으며, 90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 또 잎담배는 지린성 생산량의 5분의 4를 생산하며, 그밖에 특산물인 인삼과 과일도 많이 남.
- 산지에는 삼림이 우거져 중국의 중요한 임업지대를 이룸. 투먼·둔화·다스터우[大石頭]에 3대 제재소가 있으며, 그밖의 여러 곳에서 목재공업이 이루어진다. 또 이 목재를 원료로 하는 제지공장이 투먼·스옌[石硯]·카이산툰[開山屯] 등에 산재함.
- 동부에는 각종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 중 허룽과 훈춘의 석탄, 왕칭의 오일세일(유혈암), 텐바오산[天寶山]의 구리·납, 훈춘의 금 채굴이 손꼽힘. 공업으로는 농업기계·철강·정유·전자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지며, 공장은 옌지 등의 시 지역에 분포.

## ● 역사

- 고대에는 부여와 북옥저,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었다. 지금의 둔화 시에 있던 동모산(東牟山)은 발해 건국의 출발지. 이 지역은 발해의 중심지였던 만큼 현재도 발해 관련 유적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1949년에 발견된 정혜공주묘(둔화시 육정산(六頂山) 고분군 제1구역 2호분)와 1980년에 정효공주묘가 발견된 허룽시(和龍市)의 룡터우 산 고분군(龍頭山古墳群, 용두산 고분군) 등이 있음.
- 1860년대부터 조선의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이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함. 1881년, 옌벤(延邊, 연변)지역의 조선

인은 약 1만명이었음. 1907년에는 옌지(延吉, 연길)에만 조선인 가구 수가 5만호(戶)에 이르렀는데 한족(漢族)은 조선인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고, 3·1 운동 전인 1916년에 옌뎬의 조선인은 이 지역 총인구 26만5천명 중 약 20만명이었음. 1930년에는 옌지 현, 허룽 현, 훈춘 현, 왕칭 현 등 4개 현의 조선인은 39만명으로, 해당 지역 총인구의 76.4%를 차지했고, 한국 전쟁 직후였던 1954년에 이 지역의 총인구 85만4천명 중 조선인은 53만명으로서 전체의 62%임.

-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1952년에 조선족 자치구(自治區)가 설치되었고, 1955년에 조선족 비율이 2%에 불과한 둔화현이 이곳의 관할로 편입됨과 동시에 자치주(自治州)로 격하되었음.

## ● 교통

- 교통은 창춘[長春]·지린·투먼을 잇는 창투철도[長圖鐵道]가 지역 안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옌지에서 허룽과 카이산툰으로 지선(支線)이 분기함. 또 투먼에서 무단강과 함경북도 온성(穩城)으로 통하는 무투철도[牡圖鐵道]가 갈라짐. 도로는 철도를 따라 뻗어 있는데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발달함. 항공편으로는 옌지공항이 있는데, 국내선으로는 베이징·창춘·선양까지 운항하고, 국제선으로는 한국 부산까지 운항함.

## ● 주요 유적지

- 일제강점기에 이곳은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으므로 청산리 항일 전승지·봉오동 항일 전승지·일송정 등 유적지가 많음. 그밖에 백두산 천지, 정궐사[正覺寺], 전샤오공주묘[眞孝公主墓], 룡후석조각[龍虎石刻], 이커당아비[依克唐阿碑], 시구청[西古城],

아오둥청[敖東城], 바렌청[八連城] 등의 고대유적이 남아 있음.  
교육기관으로는 연변대학, 연변의과학원, 연변사범대학, 연변예술  
학원, 농업학원 등이 있음.

## 주요 방문지 현황

### ● 용정시(□井市, 룡정시)

#### - 위 치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중부에 위치하며, 주도(州都)인  
옌지[延吉]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상공업도시

#### - 면적/인구 : 2,591km<sup>2</sup> / 26만명

#### - 연 혁

- 1913년 : 옌볜현이 설치
- 1983년 : 룡정현으로 개칭
- 1988년 7월 : 시(市)로 승격

#### - 지 리

동남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접하고,  
동북쪽으로는 옌지, 투먼, 서남쪽으로는 허룽, 서북쪽으로는 안투  
현에 접해 있음. 백두산 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도시 가운  
데로 두만강의 지류인 하이란 강(해란강)이 흐름.

#### - 특성 및 산업

시내 한복판에 있는 3·13만세운동의 현장(용정중앙소학교)을 비롯하여  
1880년경 한국인이 우물을 처음 발견하였다는 용정 기원(起源)  
우물이 있음. 삼림 및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동·은·납·아연 등이  
채굴됨. 공업으로는 기계·화학·제지·야금·피혁 등이 생산됨.

- 두만강의 지류인 해란강(海蘭江)이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며, 주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는 쌀·콩·수수·옥수수·아마(亞麻)·사과·배 등 농산물을 산출함. 창투철도[장춘 - 투먼]가 시내로 지나며, 교육기관으로는 3개의 대학원과 146개의 소·중·고등학교가 있음.
- 문화유적으로는 비암산의 일송정(一松亭), 3·13반일의사의 묘지, 시인 윤동주의 묘지, 한왕산고성(汗王山古城) 유적 등이 있으며, 백두산 관광기지로도 큰 몫을 하고 있음.

## ● 도문시(圖們- 투먼)

- 위 치 :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
- 지명유래 : 두만강(豆滿江, 중국에서는 圖們江으로 표기)에서 비롯됨
- 지역현황
  - 투먼시는 중국 동북 지역 무역과 교통의 요지로 1988년 중국 정부에 의해 대외개방도시로 지정.
  - 투먼은 중국의 옌지[延吉], 북한의 청진(□津),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를 잇는 두만강 개발 사업 대삼각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1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와의 국경 출입구인 훈춘[琿春]의 창링쯔[長嶺子] 커우안[口岸]과 80km, 두만강의 하구(河口)와는 150km 거리에 있음.
  - 교통도 발달하여, 베이징[北京], 선양[瀋陽], 창춘[長春], 지린[吉林], 단둥[丹東], 하얼빈[哈爾濱], 다롄[大連] 등지를 잇는 철도가 투먼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음. 북한의 나진, 청진항과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원동(遠東) 운수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음.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북한, 한국, 러시아, 몽고, 일본 등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투먼시는 두만강 연안에서는 유일하게 북한과 철도로 연결되어 있어 북한과 교역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매년 2만명 이상이 투먼의 커우안을 거쳐 북한을 출입하고 있음.

### ● 두만강(□□江)

- 길이 547.8km, 유역면적이 32,920km<sup>2</sup>며, 주요 지류인 상류는 현무암으로 된 용암대지 및 화강암·화강편마암으로 된 무산고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백두산과 무산 사이에서 흘러드는 소흥단수나 서두수에서 비롯되고 있음.
- 두만강 유역은 동계혹한 기후에 속해 있어서 강우량이 적고, 일대 산림의 대부분이 성숙림으로 이루어져 있음. 또 연안에 넓은 초원이 발달하여 목축이 성하고, 부령에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음.



[도문 두만강]



[ 두 만 강 ]

## ● 백두산(白頭山)

- 위 치 :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국 동부 최고산맥
- 높 이 : 2,750m(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 천지]

- 천 지(칼데라호)
  - 면적 9.165km<sup>2</sup>, 수심 평균 213m, 최대 384m
- 명칭유래 : 화산활동으로 부식토가 산 정상에 하얗게 쌓여 붙여진 이름으로 '흰 머리 산'이라는 뜻임.
  -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 백두산을 장백산신으로 봉한 이후에 "장백산(長白山 :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음.
- 일반현황
  - 원래는 화산활동을 하는 산이었으나 이미 250년 전에 활동을 멈춘 사화산(死火山)에 속함
  - 백두산은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천연식물원으로서 동북호랑이를 비롯한 희귀한 야생동물과 야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국가급 보호구에 속함
  - 전체 면적 중 1/3은 중국의 영토로, 2/3는 북한의 영토에 속함
  - 연평균기온은 -8도로 연중 눈, 비가 내리는 날이 200여일에 달함



[백두산 관광지 입구]



[백두산 장백폭포]

## VI. 방문결과

- 경제대국 2위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 필요성 인식  
방문 당시 사드문제로 한·중 갈등이 있어 중국에서는 경고성 차원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여 방문을 어렵게 만들었고, 중국에서 초청받아 가는 것 이었는데도 중국과의 갈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지 실제 경험하였음.

세계 2위의 강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교역국이지만 정치·영토문제 등에 많은 갈등을 가진 나라라는 것도 잊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경제적인면을 살펴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삼 인식하게 됨.

- 조선족에 대한 중국내 위치 인지 및 이미지 재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부여, 고구려, 발해의 땅이었고, 가깝게는 구한 말 가난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그리고 일제 강점기때에는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기지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온 우리 조선족들은 타국땅에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옴.

그럼에도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상호나 공문서에 중국어외에 한글을 반드시 사용하도록하여 민족혼을 유지하고 있고, 근면 성실함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음.

또한 한글은 물론 중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거기에 영어, 일본어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국제화시대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음.

이를 보면서 각종 메스컴에서 보이ς 피싱이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음.

## ● 연변시의 발전모습 및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역할 확인

금번 연길 방문을 통해 중국이 그리고 연길시가 얼마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였음.

연길시는 중국내 변방에 위치하면서 불과 10년 전만해도 허허벌판이 많았다는데 지금은 높은 빌딩과 현대화 된 건물이 즐비하게 놓여 있고, 넓은 도로와 휘황찬란한 밤의 야경을 보면서 대한민국 어느 변화한 도시보다도 화려한 모습에 놀라웠음.

또한 쓰레기 운전원이 혼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통을 올려놓으면 자동 상차되는 청소차와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보면서 그들의 발전상에 감탄했음.

시장도 과거 재래식 시장을 정비하여 현대화된 건물에 입주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많이 사는 농산품(개 등)에 대해서는 5kg씩 손잡이가 있는 견고한 비닐팩에 별도 포장하여 파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이는 연길시가 국제투자무역박람회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여지고, 금번 박람회에 참석한 많은 각 국 대표들과 대규모 전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연길시 등을 교두보로 중국에 진출하여 열악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제품 홍보 등을 통해 판매 활로를 개척하여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국외자매도시인 연길시와의 우호관계 공고화 및 발전방안 점검**  
중국 연길시를 방문하였을 때 시장이 직접 관악구대표단을 맞이하여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환담을 하고, 별도로 3일간 환영 만찬을 준비하여 손님접대에 소홀함이 없이 해준 것은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 주었음.  
그러나 해마다 같은 형태의 운영방식과 일정은 여러 번 박람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음.

- **우리 민족의 주요 유적지 등 시찰을 통해 역사관 재인식**  
도문시의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두만강에 방문하여 중국인들이 북한과 자유롭게 왕래하는 다리앞에 서서, 바로 앞 북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없음 안타깝게 여기며 분단의 슬픈 현실을 눈 앞에서 확인하였음.  
또한 용문시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때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둡고 가난한 우리민족의 삶과 고뇌를 생각한 시인에 대한 애잔함이 느껴졌음.  
그리고 우리민족의 정기가 담겨있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비록 천지는 보지 못했지만 민족의 자긍심과 아픈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